

“보혜사 성령”

요 16:5-15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실 것에 대해 말씀하셨을 때 마음에 근심이 가득한 제자들에게 안심하라고 하시며 보혜사 성령이 오심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훈련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절대적인 의존적인 자들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의식주 모두를 예수님이 책임져 주셨습니다. 자기들은 그냥 따라 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두고 어디로 가야 한다고 자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아주 불안하게 되었고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을 인정하지 않고 싶을 때는 할 수 있는 대로 그 일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을 듣고도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가시면 자기들은 어떻게 되는지 할 수 있는 대로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왜 묻지 않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가시면 자기들은 어떻게 되는지 물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가시고 난 후에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인 보혜사 성령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하므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요 16:5-7)

이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속을 완성하시고 다시 오셨던 하늘나라로 돌아가시며 대신 이제는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사역을 대신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 오순절 날 성령께서 강림하셨고 이제는 성부, 성자, 성신의 시대가 아니라 성령시대가 오셔서 아버지와 아들도 성령의 배후에서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시대에 우리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이나 아버지를 알 수도 믿을 수도 없습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면 신앙 안에 믿음을 가지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인생에 대해 진지한 태도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며 이 세상에 먹고 사는 것 이상의 가치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가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시고 3일만에 부활하시고 자기들과 40일을 같이 있었지만 승천하시고 나자 다시 허전하고 불안해 지지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 마가의 다락방에서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잠그고 매일 같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열흘 후 오순절날이 이르렀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이 임하시자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 장 22 절로 24 절에 베드로가 설교에서 말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 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고 외쳤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받아 깨달은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은 영원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좇아 주께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고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연한 사건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실패가 아니란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의 죽으심은 구약의 제사의 완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무지하고 어리석게 살수 밖에 없는 것은 보혜사 성령을 받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이 세상을 살려고 했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문제들은 결국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 할 수 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느냐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기초적인 생활의 필요가 충족되고 나면 실제로 그때부터 진짜 인간의 문제가 시작되기 됩니다. 즉 먹는 문제가 해결되면 바로 ‘인간답게 사는 것이 무엇이나’라는 문제가 생기고 그 후에는 내가 과연 누구며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해야 가치 있는 과거를 해결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서 그 능력이 임해야 해결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책망을 받지 않고 사랑만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에게 책망하지 않고 그냥 받아만 주면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나름대로 자기기준의 의를 가지고 성공의 기준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판결을 내리면 이제 더 이상 다른 말을 필요가 없고 오직 성령이 하신 말씀만

이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는 말씀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은 책망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면 이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도 모르고 거짓 것에 속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사람들이 성공적인 삶이라고 생각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모두 마귀가 심어 놓은 가치관인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살면 반드시 인생에 실패하게 되어 있고 나중에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이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말씀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모릅니다. 다른 종교인들도 하나님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자기들도 자기들의 신을 통해 하나님께로 갈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삯은 사망입니다. 즉 심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네가 소유하고 있고 네가 누리고 있는 삶이 모두 다 너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실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단지 다른 사람에게 나쁜 짓을 하는 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간섭을 몰아내는 것이 죄입니다. 나의 삶을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죄입니다.

성령께서 의에 대해서 이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말씀 하십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자랑입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기에 더 잘살고 행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근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랑 중에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인물이나 성격이 좋다고 하는 것이나 이런 것을 통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을 성령께서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인간의 고행이나 수고나 자랑이나 헌신들은 인간들이 보기에는 놀랍고 자랑스러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쓸데가 없는 쓰레기와 같은 것입니다.

성령은 심판을 깨닫게 하십니다.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미 심판을 받았 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미 그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비취는 곳 마다 마귀는 패하고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모든 인간의 생각과 삶을 지배하는 신입니다. 마귀는 많은 사람들을 속여서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성공적인 삶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패한 삶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깨우침을 받기 전에는 이 썩은 가치관에 중독 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잘 살려고 하고 세상에서도 성공 하려고하는 것을 그것은 잘못된 사고방식이고 실패한 삶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스도와 성령은 하나이십니다. 분리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자는 반드시 그리스도안에 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더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고 능력을 얻기 위해 더욱더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도 더 큰 지혜와 능력을 얻기 위해서 더욱더 성경의 가르침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성령을 의지하면 권능을 받습니다.

행 1:8 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 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능력이 없는 사람 많습니다. 기도 에도 능력이 없고 전도에도 능력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의식과 형식적인 예수 를 믿지만 폭발적인 그러한 파위가 없습니다. 다이나 마이트 같은 힘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아주 즐거운 신앙생활을 하고 남에게 예수를 척척 전도하는 것을 보면 부럽기가 한이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예수 믿으면 성령이 와 계시지만 간절히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성령침례란 충만의 체험을 하게 되면 권능 이 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권능 과 능력이 임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능력한 이름만 믿는 신자가 아니라 정말 그 생활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눔의 시간

1.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곧 자신들을 떠날 것을 알고 근심하고 있던 제자들(6 절)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근심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떠남이 오히려 제자들 에게 유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를 7 절에 근거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2.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세가지 영역에 대해 책망하신다고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해 보고, 또 성령을 받으면 어떤 열매가 열리게 되는지 사도행전 1:8 에 근거해서 나누어 봅시다.
3. 우리는 '성령충만'이란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혹시 나는 이 용어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없었는지,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성령충만'에 대해 새롭게 정리된 부분이 있다면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